

손자녀 양육효능감과 양육어려움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Rearing Grandchildren and Parenting Efficacy on Life Satisfaction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전은미**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선강***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University

M. A. Jeon, Eunmi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University

Professor Koh, Sun-Ka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
| II. 선행연구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d the life satisfaction of grandparents currently rearing grandchildren between 0 to 6 years old. We conducted a survey in Seoul, Gyeonggi-do, and Jeolla-do, collecting 134 questionnaires in tota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renting efficacy of grandparents presently rearing grandchildren had a profound impact on life satisfaction. Precedent studies revealed that the physical conditions of grandparents, their education levels, and household income were factors related to the life satisfaction of seniors.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parenting efficacy had a far greater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an other factors. It was revealed in this study that parenting efficacy is a very important variable for life satisfaction, not only for mothers and grandmothers but for all grandparents.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andchildren

*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전은미(seilerem@naver.com)

*** 교신저자: 고선강(skoh@sungshin.ac.kr)

also had an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ir grandparents, although not more than parenting efficacy. Out of the characteristics of grandchildren, variables including sex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disease were shown to ha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Secondly, the difficulty of parenting activities influence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efficacy has an impa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grandparents. The more difficult the parenting activities of grandparents, the lower the parenting efficacy, and the higher the parenting efficacy,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of grandparents.

Key Words : 손자녀 양육(rearing grandchildren),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양육 효능감(parenting efficacy)

I. 서론

평균수명의 연장과 유년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2015년 통계청 발표(통계청, 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13.1%로 1960년과 비교하여 고령층의 비율이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의 비율은 2013년에 24.3%에서 2060년에는 40.1%로 높아질 전망이며, 국가별 고령인구 비율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2015년에 세계 51위에서 2030년 15위, 2060년에는 세계 2위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켰다.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사람들은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것, 잘 늙어가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의 노년기에 대한 관심은 단순하게 생명을 연장하여 오래 사는 것이 아닌 노년기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 중 하나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이다. 여성의 고학력화,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등으로 최근 맞벌이 가정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42.9%에 이르러 오늘날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맞벌이 가정이라 할 수 있다(김수정, 2015).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로 인하여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척이 자녀를 돌봐주는 비공식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전혜정 외, 2013). 맞벌이 가정에서의 비공식 보육 서비스 중에서도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201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 중 절반 이상이 조부모가 손자녀의 육아를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맞벌이 가정의 육아지원서비스를 다룬 연구에서도 아이돌보미, 가정보육사 또는 베이비시터 이용률(각각 5.0%, 5.4%)보다 조부모, 친인척 이용률(63.6%)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유해미 외, 2014, 이윤진 · 권미경 · 김승진, 2015 재인용).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경험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발견한 연구들이 많았다(배지희 · 노상경 · 권경숙, 2008; 오진아, 2006; 전연우 · 김윤숙 · 조희숙, 2012). 하지만 최근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한 연구들도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손자녀 양육을 통해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관계가 활발하게 유지되어 조부모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며(김은정, 2012),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경험(김문정,

2009; 전해정 외, 2013)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손자녀를 양육하는 젊고 건강한 조부모들이 많아지고,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 ‘황혼육아’ 등의 신조어 등장과 함께 부모 이상의 조부모의 역할을 하는 손자녀 양육이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일상생활에 손자녀 양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김지현, 2012)을 간과할 수 없듯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을 들여다 볼 때 손자녀 양육에 관한 생각과 경험을 무시하고 살펴볼 수 없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는 어머니였는데, 부모 중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자녀와 보내게 되는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감정과 신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안지영, 2000).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지적 측면, 구체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자녀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정서적인 부분, 삶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지현, 2012; 조영숙·이양희, 2007).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양육해주고 있는 조부모의 경우, 손자녀의 부모보다 손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된 내용들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확장시켜 적용해 보면, 손자녀의 양육자인 조부모의 삶에 손자녀 양육에 대한 감정과 신념, 손자녀 양육행동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주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삶에 자녀에 대한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면, 맞벌이 성인자녀를 위하여 손자녀의 양육자로서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도 이들의 삶의 만

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특별히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이들의 삶의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손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에 집중하여, 손자녀 양육의 인지적인 측면인 양육효능감과 행동적인 측면인 구체적인 양육활동, 그리고 조부모의 삶의 만족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이 늘어나고 있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문제를 조부모들이 일정 부분 해결하고 있는 것에 비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에 손자녀 양육이 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삶의 만족

1970년대 이후 객관적 지표에 대한 대안으로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최근까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 오고 있다. 삶의 만족감 개념이 일반화 된 것은 1961년 Neugarten, Havighurst & Tobin(1961)이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삶의 만족감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김지현, 2012). Medley(1976)은 삶의 만족감을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대가 형성되며 이런 기대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삶의 만족이란 개인의 기대와 그 충족도 여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Diener(1984)는 삶의 만족은 인지적 평가와 감정적 평가를 포괄하며 구체적으로 생활 범위 및 전반적인 생활에서 인지적 및 감정적 반응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삶의 만족은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과 과거나 현재, 미래까지 포함하여 생활역사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주관적이며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이며, 삶에 대한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지현, 2012).

2.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조부모들의 연령이 중노년기에 해당하므로 중노년의 삶의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들이 조부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김미령, 2014; 오진아, 2006; 최명희, 2012). 오진아(2006)는 평균 연령이 57.4세인 조모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분석하였는데, 연령에 따라 50대의 삶의 질 점수가 가장 높았고 60대의 삶의 질이 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최명희(2012)도 50대의 삶의 질 수준이 60대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하였다. 김미령(2014)은 조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조부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짐을 발견하였다.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일관되지 않고 연구대상에 따라 다르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기남(2004)의 연구에서는 여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남성노인에 비해 높았으며,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을 연구한 강상경(2012)은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현진(2015)은 베이비붐세대를 연구하였는데,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교육수준과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 중 조부모의 교육수준과 삶의 질이 연관성을 발표한 연구로 최명희(201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조모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 집단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종교도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과의 관련성이 발견된다.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을 연구한 오진아(2006)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가 종교가 있는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삶의 질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으나(박기남, 2004, 최명희(2012)의 연구에 의하면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이 높게 나타나는 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삶의 질에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며, 주관적 건강인식 및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령, 2014; 박기남, 2004).

가구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전 연령대에 걸쳐서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강상경, 2012). 베이비붐 세대를 연구한 이현진(2015)의 연구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조모의 경우도 역시 전반적으로 가정의 월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월소득 2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최명희, 2012).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의 특성과 조부모의 삶의 만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조부모가 돌보고 있는 손자녀가 1명인 집단과 2명 이상인 집단을 비교했을 때, 1명의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의 삶의 질 수준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높았다고 한다(최명희, 2012). 이와 달리 돌보는 손자녀의 수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때 돌봄상황 자체(돌봄연수, 돌봄시간, 돌봄장소, 돌보는 손자녀 수)는 돌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김미령, 2014).

양육효능감, 양육활동에서의 어려움 등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양육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한 연구들이 있다. 김지현(2012)은 7세 이하의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관해 연구한 결과 양육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었다. 즉, 어머니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 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양육효능감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취업모와 비 취업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역할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지현(2011)은 두 집단 모두 양육효능감 보다는 부모역할만족도가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부분이 더 크게 나타났으나, 양육효능감은 주양육자의 삶의 만족도에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효능감 또는 손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취업모인

자녀를 대신해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문정(2009)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를 구조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조모의 손자녀 양육효능감은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밝혔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양육효능감과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변수의 측정 및 조작적 정의

1) 변수의 측정

(1) 양육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ibaud-Wallston과 Wandersman이 개발한 16개 항목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신숙재(1997)가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신숙재(1997)는 PSOC를 요인분석하여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9문항),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4문항)의 2개의 요인을 추출하여 그 가운데 9개 항목의 '부모 효능감'을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하부척도로 사용하였다(김문정, 2009에서 재인용). 김문정

(2009)연구에서 동일 척도를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 대상으로 사용하여 검증된 바 있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그저 그렇다’는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하였다. 이 중 5번, 6번 문항은 역코딩 하였다. 점수는 9점에서 45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0.93으로 매우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양육활동 어려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활동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생활시간조사’ 보고서(도남희·김정숙·하민경, 2013)에 사용된 영유아 행동분류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영유아 행동분류 기준은 총 7개의 대분류, 34개의 중분류, 77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자는 개인유지, 학습, 대리양육 이용하기, 가정 관리 돕기, 교제 및 여가 활동, 이동하기, 기타행동으로 구성된 총 7개의 대분류 중에서 본 연구와 중복이 되는 대리양육 이용하기와 가정관리 돕기, 기타행동은 제외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사를 추가하여 총 5개의 대분류로 수정 보완하였다. 수정한 문항들을 보육과 교수에게 자문을 받아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5단계 Likert 척도로써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였다.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는 0점에서 130점 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 힘들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준문항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양육활동 어려움을 측정하는 25문항의 총점과 “나는 손자녀를 돌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힘들다”

는 문항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그 결과 $r = .786$ 으로 나타나 기준문항 타당도에 의한 타당도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삶의 만족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Neugarten, Havighurst와 Tobin(1961)에 의해 개발된 12문항으로 측정하는 Life Satisfaction Index B(LSIB)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12개 항목으로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그저 그렇다’는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하였다. 이 중 1번, 3번, 5번, 8번, 11번, 12번 문항은 역코딩 하였다. 점수는 최소12점에서부터 최대 60점까지 점수 분포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3$ 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중 척도를 구성하여 측정한 변수들(양육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 이외에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령은 만나이로 조사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1)과 그 미만의 학력(0)으로 가변수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종교와 결혼상태도 가변수인데, 종교가 있는 경우 1로 코딩하였고, 없는 경우 0으로 코딩하였고, 혼인상태인 경우 1, 혼인상태가 아닌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건강상태는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한 건강상태인데, ‘건강이 매우 좋다(1점)’, ‘건강이 나쁜 편이다(2점)’, ‘그저 그렇다(3점)’, ‘건강이 좋은 편이다(4점)’, ‘건강이 매우 좋다(5점)’로 구분하였다. 총 가구소득은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기록하게 한 것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자녀 수도 응답자의 자녀 수를 기록한 연속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손자녀 성별은 남

아(1), 여아(0)로 구분하였고, 손자녀 질병 여부도 특별한 질병이 있다고 답한 경우(1), 특별한 질병이 없다고 답한 경우(0)로 구분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재 자녀(손자녀의 부모)가 맞벌이 부부여서 자녀 대신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손자녀를 양육한다 함은 손자녀를 일주일 중 몇 일, 하루의 몇 시간 등 정해진 기간(시간)에 정기적으로 돌보는 경우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 (1) 현재 자녀(손자녀의 부모)가 맞벌이(학업 포함) 중인 자
- (2) 손자녀의 연령이 현재 만0세-만7세 이하인 자
- (3) 본 연구의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 (4)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 3월 16일부터 2016년 5월 2일까지 일대일 대면 조사와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비확률 표집 방법으로 하였다. 손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는 조부모들로 조직된 비공식적인 모임과 약 13곳의 어린이집 도움을 받아 조사 대상자들을 표집하였다. 배포된 200부의 설문지 가운데 139부가 회수되었으나, 적절하지 않은 5부를 제외한 총 134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 사용된 설문지의 지역분포는 무응답 1부를 제외하고 서울 96부, 경기 8부, 광주 29부 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Versio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손자녀 양육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을 사용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어려움의 영향력을 크기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VIF값을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넷째, 양육효능감과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5. 표본의 일반적 특성

조부모 성별은 남성 20명(14.9%), 여성 113명(84.3%)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61.13세로, 50대는 56명(41.8%), 60대는 64명(47.8%), 70대 이상은 11명(8.2%)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무학 5명(3.7%), 초등학교 22명(16.4%), 중학교 26명(19.4%), 고등학교 40명(29.9%), 전문대학 이상 40명(29.9%)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유 76명(57.1%), 무 57명(42.5%)으로 나타났고, 결혼상태는 배우자 있음 114명(85.1%), 배우자 없음 17명(12.7%)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건강상태는 건강이 매우 안 좋다 5명(3.7%), 건강이 나쁜 편이다 19명(14.2%), 그저 그렇다 42명(31.3%), 건강이 좋은 편이다 50명(37.3%), 건강이 매우 좋다 11명(8.2%)으로 나타났다. 총 가구소득은 평균 261.78만원으로, 100만원 미만 15명(11.2%), 100-150만원 미만 23명(17.2%), 150-200만원 미만 23명(17.2%), 200-300만원 미만 22명(16.4%), 300-500만원 미만 29명(21.6%), 500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성	20	14.9
	여성	113	84.3
	무응답	1	.7
연령	50대	56	41.8
	60대	64	47.8
	70대 이상	11	8.2
	무응답	3	2.2
	M±SD	61.13 ± 5.599(세)	
교육수준	무학	5	3.7
	초등학교	22	16.4
	중학교	26	19.4
	고등학교	40	29.9
	전문대학 이상	40	29.9
	무응답	1	.7
종교	유	76	57.1
	무	57	42.5
	무응답	1	.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14	85.1
	배우자 없음	17	12.7
	무응답	1	.7
건강상태	건강이 매우 안 좋다	5	3.7
	건강이 나쁜 편이다	19	14.2
	그저 그렇다	42	31.3
	건강이 좋은 편이다	50	37.3
	건강이 매우 좋다	11	8.2
	무응답	7	5.2
총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5	11.2
	100-150만원 미만	23	17.2
	150-200만원 미만	23	17.2
	200-300만원 미만	22	16.4
	300-500만원 미만	29	21.6
	500만원 이상	15	11.2
	무응답	7	5.2
	M±SD	261.78±214.064(만원)	
자녀 수	1명	9	6.7
	2명	71	53.0
	3명	34	25.4
	4명	14	10.4
	5명 이상	6	4.5
손자녀 성별	남자	58	43.3
	여자	74	55.2
	무응답	2	1.5
손자녀 질병여부	유	11	8.2
	무	123	91.8
합계	134	100.0	

만원 이상 15명(11.2%)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는 1명 9명(6.7%), 2명 71명(53.0%), 3명 34명(25.4%), 4명 14명(10.4%), 5명 이상 6명(4.5%)이었다. 손자녀 성별은 남자 58명(43.3%), 여자 74명(55.2%)으로 나타났고, 손자녀 질병여부는 유 11명(8.2%), 무 123명(91.8%)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

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이고, 통제 변수는 조부모 특성으로 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건강상태, 총 가구소득, 자녀 수 등 7개 변수, 손자녀 특성으로 손자녀 성별, 손자녀 질병 여부 등 2개 변수, 독립변수는 양육효능감과 양육활동 어려움으로 설정하였다.

회귀분석 실시에 앞서 우선 각 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 및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살펴본 결과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는 0.1 보다 크며, VIF값은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수		삶의 만족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β	t	p	β	t	p	β	t	p	β	t	p
조부모 특성	(상수)	2.584	.011		2.454	.016		-.706	.482		-.234	.816	
	연령	-.080	-.958	.340	-.053	-.633	.528	.055	.924	.357	.106	1.691	.094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상)	.164	2.244*	.027	.137	1.851	.067	.064	1.228	.222	.077	1.495	.138
	종교(유)	.021	.315	.753	.018	.275	.784	.021	.442	.659	.024	.527	.599
	결혼상태(유)	.032	.455	.650	.036	.522	.602	.030	.630	.530	.047	.992	.324
	건강상태	.595	8.535***	.000	.553	7.686***	.000	.280	4.935***	.000	.246	4.270***	.000
	총 가구소득	.120	1.698	.092	.115	1.635	.105	.086	1.740	.085	.069	1.424	.158
	자녀 수	-.002	-.033	.974	-.034	-.494	.623	-.003	-.060	.952	-.016	-.323	.747
손자녀 특성	손자녀 성별(여)				.120	1.764	.081	.103	2.150*	.034	.094	2.017*	.046
	손자녀의 질병여부(유)				-.055	-.892	.374	-.063	-1.458	.148	-.037	-.853	.395
양육효능감								.590	10.490***	.000	.522	8.406***	.000
양육활동 어려움											-.155	-2.336*	.021
F-value(p)		24.422***(.000)			19.882***(.000)			47.305***(.000)			45.325***(.000)		
R ² (adj. R ²)		.613(.588)			.628(.596)			.818(.801)			.827(.809)		

*p<.05, ***p<.001

먼저 모형 1에서 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건강상태, 총 가구소득, 자녀 수 등 7개의 조부모 특성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은 24.422($p < .001$)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 값은 0.613으로 삶의 만족의 총 분산 가운데 6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건강상태, 총 가구소득, 자녀 수 등 7개의 조부모 특성과 손자녀 성별, 손자녀 질병여부 등 2개의 손자녀 특성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은 19.882($p < .001$)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 값은 0.628로 삶의 만족의 총 분산 가운데 62.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특성과 손자녀의 특성들만 투입한 모형1과 모형2에서 일관되게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조부모의 건강상태였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모형 3에서 독립변수인 양육효능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은 47.305($p < .001$)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R^2 값은 0.818로 삶의 만족의 총 분산 가운데 8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로서 양육효능감($\beta = .590, p < .001$)이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4에서 독립변수인 양육활동 어려움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은 45.325($p < .001$)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R^2 값은 0.827로 삶의 만족의 총 분산 가운데 8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로서 양육활동 어려움($\beta = -.55, p < .05$)이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활동

어려움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활동 어려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양육효능감과 양육활동 어려움의 표준화계수(β)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는 양육활동에서의 어려움 정도 보다 양육효능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양육효능감과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으나, 양육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을 구성개념으로 설정하지 않고, 모형에 사용한 모든 변수는 직접 측정이 가능한 변수로 설정하였다.

모형의 적합성평가는 공분산 구조모형이 연구 가설에 적합한 정도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절대 적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 χ^2 , GFI, AGFI, RMSR),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 NNFI, NFI, Delta 2),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measures: PGFI, PNFI, AIC) 등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부모 특성(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소득)을 통제한 연구모형 1은 적합도 지수 중 $\chi^2 = (50.176)$, $p\text{-value} = (0.000)$, GFI(goodness-of-fit index) = (0.916), AGFI I(adjusted goodness-of-fit index) = (0.579), NFI(normal-fit index) = (0.913), CFI(comparative fit index) = (0.928), Delta 2 IFI(Incremental fit index) = (0.928)로 분석되었고, 손자녀 특성(손자녀 성별, 손자녀 질병여부)을 통제한 연구모형 2는 적합도 지수 중 $\chi^2 = (4.085)$,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분	CMIN	p	CMIN/df	GFI	AGFI	NFI	CFI	Delta 2
연구모형1	50.176	.001	5.575	.916	.579	.913	.924	.928
연구모형2	4.085	.043	4.085	.986	.793	.985	.988	.989
적합도 기준	-	-	≤ 3	≥ 0.9	≥ 0.9	≥ 0.9	≥ 0.9	≥ 0.9
판정	-	-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주) 연구모형1: 조부모 특성(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소득 통제)

연구모형2: 손자녀 특성(손자녀 성별, 손자녀 질병여부 통제)

p-value=(0.000), GFI(goodness-of-fit index)=(0.986), AGF I(adjusted goodness-of-fit index)=(0.793), NFI (normal-fit index)=(0.985), CFI(comparative fit index)=(0.988), Delta 2 IFI(incremental fit index)=(0.989)로 분석되었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 모두 χ^2 값이 다소 높게 나타나 비록 연구자의 이론적 모형과 실증데이터 간 거리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의미이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통계치이므로 개별 모형에서 크게 의미를 두고 해석하지는 않았다. 또한 AGFI 역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이 외의 적합도 지수들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모형에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양호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다음의 <표 3>은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 연구모형의 경로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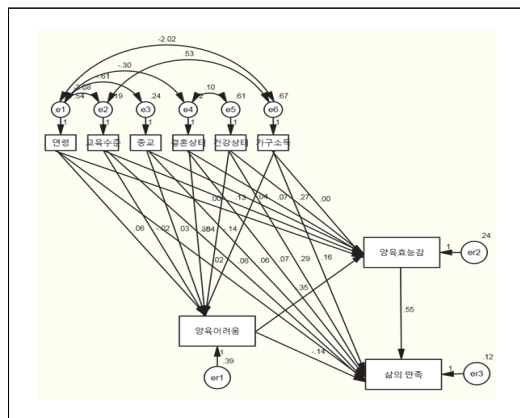
조부모 특성(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소득)을 통제한 연구모형 1의 경로 추정치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양육활동 어려움($\beta=-.351, p<.001$)은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활동 어려움($\beta=-.144, p<.01$)은 삶의 만족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효능감($\beta=.546, p<.01$)은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모형1의 경로추정치

경로	Estimate	S.E	C.R.	p
양육활동 어려움 → 양육 효능감	-.351	.073	-4.788***	.001
양육활동 어려움 → 삶의 만족	-.144	.055	-2.609**	.009
양육 효능감 → 삶의 만족	.546	.064	8.500***	.001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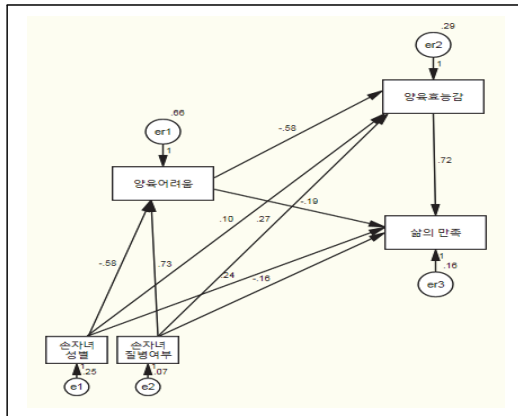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1의 경로추정치

손자녀 특성(손자녀 성별, 손자녀 질병여부)을 통제한 연구모형 2의 경로추정치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양육활동 어려움($\beta = .577, p < .001$)은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활동 어려움($\beta = .192, p < .01$)은 삶의 만족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효능감($\beta = .722, p < .01$)은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모형2의 경로추정치

경로	Estimate	S.E	C.R.	p
양육활동 어려움 → 양육 효능감	-.577	.062	-9.256***	.001
양육활동 어려움 → 삶의 만족	-.192	.060	-3.181**	.001
양육 효능감 → 삶의 만족	.722	.068	10.542***	.001

p<.01, *p<.001



<그림 2> 연구모형2의 경로추정치

2)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분석

조부모 특성(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소득)을 통제한 연구모형 1의 직·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분석결과 양육활동 어려움은 양육효능감을 거쳐 삶의 만족($\beta = .192, p < .01$)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연구모형1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양육활동 어려움 → 양육 효능감	-.351***	-	-.351***
양육활동 어려움 → 삶의 만족	-.144**	-.192**	-.336***
양육 효능감 → 삶의 만족	.546***	-	.546***

p<.01, *p<.001

손자녀 특성(손자녀 성별, 손자녀 질병여부)을 통제한 연구모형 2의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분석결과 양육활동 어려움은 양육효능감을 거쳐 삶의 만족($\beta = .417, p < .001$)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연구모형1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양육활동 어려움 → 양육 효능감	-.577***	-	-.577***
양육활동 어려움 → 삶의 만족	-.192**	-.417***	-.609***
양육 효능감 → 삶의 만족	.722***	-	.722***

p<.01, *p<.001

조부모의 양육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 삶의 만족의 관계의 경로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부모의 양육활동 어려움의 정도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떨어지고,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조부모

의 삶의 만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양육활동의 어려움이 높을수록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을 낮추는 부분도 있고, 양육활동의 어려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떨어져서 삶의 만족이 낮아지는 즉 양육활동 어려움이 양육효능감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을 낮추는 부분도 있었다. 양육활동의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보다 양육효능감을 통해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의 크기가 더 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맞벌이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만 0-7세의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이다.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총 134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부모 특성, 손자녀 특성, 양육효능감, 양육활동 어려움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양육효능감은 그들의 삶의 만족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조부모의 건강상태(강상경, 2012; 김미령, 2014; 박기남, 2004), 교육수준(강상경, 2012; 이현진, 2015), 가구소득(강상경, 2012, 이현진, 2015) 등이 밝혀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이러한 요인들보다 양육효능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효능감과 조모의 손자녀 양육효능감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문정, 2009; 김지현, 201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어머니와 조모 뿐 아

니라 조부모에게도 양육효능감은 삶의 만족에 있어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부수적으로 양육효능감 보다는 영향이 크진 않지만, 양육하는 손자녀 특성도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었다. 손자녀 특성 중 손자녀의 성별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손자녀 양육활동 어려움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며, 양육효능감은 조부모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조부모의 양육활동 어려움의 정도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떨어지고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조부모의 삶의 만족이 낮았다. 또한 양육활동 어려움이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 양육활동 어려움이 양육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컸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양육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로 수행하고, 일부 지역은 보건소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윤진·권미경·김승진, 2015). 각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손자녀 건강관리, 양육기술 및 정보, 안전교육, 스트레스 관리 및 갈등해결 전략, 놀이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양육활동의 어려움이 조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큰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손자녀와 가정에 있는 교구나 놀잇감 등을 이용하여 함께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함께 쇼핑이나 마트 가기 등처럼 손자녀와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하는 활동들에 대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활동이나 놀이의 확장을 흥미롭게 이끌어낼 수 있는 대화법이나 동화구연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조부모의 양육효능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일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론 중심의 수업으로 이뤄져 있을 뿐 아니라 일시적이며 단기간 안에 진행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경향이 있다(이운진·권미경·김승진, 2015). 조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인지적인 측면으로 단기간의 교육보다는 장기적으로 손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에 건강상태도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고려하여, 조부모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집안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손자녀 양육시 관절이나 허리 등에 무리가 적게 가는 동작을 배울 수 교육, 신체적으로 무리를 주는 잘못된 자세의 교정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엽산이나 철분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에게 비타민이나 영양제 제공 등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자료수집이 서울, 경기도, 광주광역시에서만 이루어졌고, 조사 대상자의 선정이 비확률 표집방법으로 이뤄졌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보다 일반화 가능한 연구방법을 적용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조부모 특성, 손자녀 특성, 양육 특성과 조부모의 삶의 질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선정과 자료수집 과정의 제한으로, 조부모의 자녀의 특성(손자녀의 부모 특성)을 함께 살펴볼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손자녀 양육과 관련이 있는 조부모의 자녀(손자녀의 부모)의 특성도 조사하여 연구해 보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강상경(2012). 삶의 만족도와 관련요인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베이비붐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 간 비교. 한국복지연구, 43(4), 91-119.
- 2) 김문정(2009). 손자녀 양육 조모의 생활만족도 구조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김미령(2014). 손자녀 돌봄노동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6(1), 178-204.
- 4) 김수정(2015).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지지와 직무 만족과의 관계에서 일-가족 향상의 매개효과: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은정(2012). 손자녀 양육 조모의 양육보상감 및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32(3), 851-867.
- 6) 김지현(2011).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5), 49-57.
- 7) 김지현(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8) 도남희·김정숙·하민경(2013). 영유아생활시간조사. 육아정책연구소.
- 9)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차이. 한국노년학회, 24(3), 13-29.
- 10) 배지희·노상경·권경숙(2008). 조부모의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 현황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379-410.
- 11)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안지영(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오진아(2006).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아동간호학회지, 12(3), 368-376.
- 14) 이윤진 · 권미경 · 김승진(2015).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15) 이현진(2015).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변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전연우 · 김윤숙 · 조희숙(2012). 손자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외할머니의 심리적 상태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7(6), 175-199.
- 17) 전해정 · 조규영 · 박민경 · 한세황(2013). 손자녀 양육자로서의 전이가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3(3), 515-536.
- 18) 조영숙 · 이양희(2007).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취학 전 아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4), 97-112.
- 19) 최명희(2012).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통계청(2015).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2015.7.8.)
- 21)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22) Medley, M.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 sixty-five years of age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4), 448-455.
- 23) Neugarten, B., Havighurst, R. & Tobin, S.(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1), 134-143.

- 투 고 일 : 2016년 9월 1일
- 심 사 일 : 2016년 10월 8일
- 게재 확정일 : 2016년 11월 28일